

이성민(남)\_ 키: 대략 175

나이: 대략 20 대 중반(24)

얼굴: 고양이상(평범한 얼굴)

성격: 한 사람만 바라본다.

성격이 급해서 혼자 생각한 것을 사실이라고 단정지어버린다.

주로 화를 잘 못 참아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놓고 바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과를 잘한다.

김민아(여)\_ 키: 대략 165

나이: 대략 20 대 초반(21)

얼굴: 강아지상(귀여운 이미지)

성격: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격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한다.

감정 표현에 서툴다.

+ 김택민(남)\_ 키: 대략 180

나이: 대략 20 대 초반(21\_ 민아랑 친구)

얼굴 : 성민이가 질투 할 만큼 잘생김

### S#1 카페 (실내/낮)

더운 날씨 탓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는 한 커플. 김민아는 한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이성민의 손을 잡으며 눈은 핸드폰에 고정 되어있다. 그런 김민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성민. 김민아는 카페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주는지 물어보러 갔다 온다며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 이성민은 김민아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놓고 간 김민아의 핸드폰이 켜지며 메시지가 온다. 순간 눈에 보이는 남자이름에 김민아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다. '( EX\_ 6시까지 집 앞 맞죠??)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고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김민아는 충전기를 빌려왔다며 다시 자리에 앉는다. 김민아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급한 일이 있는 걸 까먹었다며 연락하겠다고 하며 짐을 챙겨 카페에서 나간다. 이성민은 급하게 나가는 김민아의 뒷모습을 보고는 바로 따라 나간다.

### S#2 공원

김민아를 따라 나왔지만 김민아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성민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김민아가 말한 급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걱정한다. 문득 이성민은 아까 김민아 핸드폰에 온 메시지가 생각나게 되고 메시지에 온 장소에 가보기로 결정한다.

### S#3 좀 분위기 있는 다른 공원 (실외/저녁)

메시지에서 확인한 시간에 맞춰 김민아의 약속장소로 향한다. 약속 장소 근처에 왔을 때쯤 김민아의 웃음 소리가 들린다. 들킬 까봐 몰래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는데 김민아와 모르는 남자(A)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고 김민아와 A가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본다.

### S#4 김민아의 집 앞 (실외/늦은 저녁)

이성민은 카페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김민아에게 상황 설명을 하라고 하기 위해 김민아의 집 앞으로 찾아간다. 김민아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A를 만나고 돌아오는 김민아와 마주친다. 이성민은 김민아에게 아까 A랑 있는 거 봤다고 누구냐고 추궁하며 자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고 김민아의 입장은 듣지 않고 화를 낸다. 화를 내는 이성민에게 김민아는 곧 기념일이어서 이성민에게 줄 선물을 미리 몰래 준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성민의 화는 풀리지 않고 계속 김민아를 의심하며 화를 낸다. 화가 사라지지 않아서 김민아와 대화 중 집으로 가려고 뒤를 돈다. 김민아와 싸운 상태로 집으로 가려고 몇 발자국 가는 순간 이성민은 김민아가 자신의 이런 모습에 자신을 버릴까 봐 무서워진다. 이성민은 다시 뒤를 돌아 김민아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며 울면서 매달린다. 김민아는 이성민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우는 이성민을 안아주며 끝난다.

### S#1 카페 (실내/낮)

더운 날씨 탓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는 한 커플. 김민아는 한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이성민의 손을 잡으며 눈은 핸드폰에 고정 되어있다.

**김민아** 아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네. 혹시 여기 핸드폰 충전기 빌려주나?

**이성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배터리 부족해? 물어봐줄게.

**김민아** 아니야. 내가 물어보고 올게.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가는 김민아. 김민아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고 있는 이성민. 순간 김민아의 핸드폰이 켜지며 메시지가 온다.

**메시지** 이따 6시까지 하루공원에서 보는 거 맞죠?

김민아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는 이성민.

**김민아** (자리에 앉으며) 오빠 여기 충전기는 못 빌려주고 카운터에서 충전은 해줄 수 있대.

(핸드폰을 확인하며) 핸드폰 맡기고 올게.

문자를 확인한 김민아.

**김민아** 헐 오빠 나 급한 일 있는 걸 까먹고 있었어. (짐을 챙기며) 이따 연락할 게.

**이성민** 어... 어. 그래. 연락할 게.

이성민은 급하게 나가는 김민아의 뒷모습을 보고는 바로 따라 나간다. 성민이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성민** 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간거지?,,, 문자 보낸 사람 설마 아닐거야,, 하,,,, 아니다,, 아.. 몰라.

성민도 일어나서 카페를 나간다.

### S#2 공원 (실외/저녁)

메시지에서 확인한 시간에 맞춰 김민아의 약속장소로 향한다. 약속 장소에서 김민아와 모르는 남자(A)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김민아** (웃으며) 늦었는데 여기까지 와줘서 진짜 고마워.

**김택민** (웃으며)고마우면 다음에 밥 한끼 사.

**김민아** (택민을 터치며) 아 그럼. 진짜 고맙다.

김택민    아니. 그래서....

김민아와 A가 대화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는 이성민.

### S#3 김민아의 집 앞 (실외/늦은 저녁)

김민아에게 상황 설명을 하라고 하기 위해 김민아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이성민. 김민아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택민을 만나고 돌아오는 김민아와 마주친다.

김민아    (당황하며) 어?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이성민    나랑 있을 때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으면서 만난 그 남자는 누구야?

김민아    뭐? 무슨 말이야?

이성민    아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공원에서 봤어.

김민아    아,, 그건

이성민    (김민아의 말을 끊으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남자는 대체 누군데? 언제부터 만났어?

김민아의 입장은 듣지 않고 화를 내는 이성민.

김민아    (당황하며) 오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친구야. 친구.

이성민    (어이가 없다는 듯) 뭐? 진짜 너무 하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 하,, 아니다. 됐다.

김민아와 대화 중 화가 나서 가려고 뒤로 돌아선다. 민아가 잡으며 부른다.

김민아    오빠, 진짜 오해야. 가지마.

이성민    (다시 뒤돌아서며) 화내서 미안해.

김민아    (선물을 건내면서) 사실은 오빠가 가지고 싶어하던 시계가 어제 당근에 올라왔어. 그런데 만나보니까. 예전 학교 친구였어. 그래서 숨겼어. 미안. 앞으로는 안 숨길게.

이성민    (안아주며) 내가 미안해.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아름다운 조명 아래에 알콩달콩 서로를 쳐다보는 커플. 끝.